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EAI 여론분석 시리즈 ③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지은이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발행자 이흥구

발행처 (재) 동아시아연구원

편 집 이상협 · 주영아

디자인 김민주

표지 디자인 송성재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2277-1683 (代)

팩스 02-2277-1684

홈페이지 www.eai.or.kr

등록 제2-3612호 (02.10.7)

값 17,000원

ISBN 89-92395-02-1 (93300)

머리말

한국에서 과학적인 선거연구의 시작은 민주화의 출발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1987년 이후 선거가 정치경쟁의 수단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 선거연구도 본격적으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선거연구의 핵심 주제가 유권자의 행태에 관한 분석인데, 집합자료는 개인수준의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설문조사 자료가 필수적이다. 잘 디자인된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어떤 유권자들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연구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연구의 수준은 얼마나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동안 한국선거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설문자료는 선거 후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이다. 여기에는 선거참여에 관한 것만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응답자가 갖고 있던 의식과 태도 등에 관한 많은 설문들이 포함된다. 이 같은 횡단면(cross-sectional) 설문자료의 가장 큰 한계는 선거결과가 밝혀진 상황에서 선거 이전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므로 응답자들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기억을 통해서 응답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설문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이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tudy)이다. 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료 자체의 신뢰성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추적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응답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특성 덕분에 연구를 위해 통제해야 할 많은 변수들을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변화의 원인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패널조사의 장점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지만 조사를 위한 복잡한 준비와 높은 비용 등의 문제로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그동안 거의 시도되지 못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동아시아연구원, 중앙일보, SBS, 그리고 한국리서치가 네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는 한국선거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본 단행본은 국내선거 연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패널여론조사기법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및 지지후보 결정요인의 변동 내용과 원인을 심층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3개 광역단체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다. 불과 2년 전 치뤄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독식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지방선거 결과로부터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이러한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결정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결과인가 아니면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이 일시적으로 표출

된 결과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200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추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당체제의 재편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한 번의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의 모든 논문들은 유권자들의 지지성향 변화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을 담아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설문조사 방법인 패널조사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패널조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1장에서는 선거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대별로 정리하고 패널조사의 학문적 의미와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패널조사를 실제로 담당했던 한국리서치의 연구진이 패널조사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회의과정과 표본추출 방식, 패널유지의 원칙, 자료산출 방식까지 조사수행을 위한 매뉴얼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부에는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변화를 분석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3장에서는 이번 패널조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패널조사의 장점을 살려 유권자 투표행태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주제로 하여 응답자들의 투표참여 결정시기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초기부터 참여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은 이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며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는 반면 중간에 투표 결정을 한 응답자들은 선거정보나 선거관심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5장은 유동투표자를 주제로 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지지후보 변경자와 일관투표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투표자 가설을 기초로 유동투표자들이 일관투표자들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정당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동투표자들이 선거결과를 바꿀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3부는 투표결정이 주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 논문들을 모았다. 6장은 응답자들의 정치이념과 정당에 대한 태도가 선거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치이념의 지속성 여부와 함께 좋아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이 1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당에 대한 태도가 후보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당에 대한 태도변화가 정치이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장은 2006 지방선거에서 2004년 총선 때와 다른 정당에 투표한 이탈투표자(swing

voter)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지지기반 재편의 규모와 방향,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이탈투표의 규모를 보면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투표자들의 이탈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중 상당수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이탈 비율은 가장 낮아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정당충성도가 높고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탈투표자들의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지지정당을 변경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8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후보를 후보자 이미지의 대표적 사례로 하여 이미지에 의한 응답자들의 후보자 선호와 그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보선택에서 이미지가 결정적이었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지만, 정당지지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던 강금실 후보의 경우 개인적 이미지가 좀 더 중요한 지지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선거매체의 변화를 포함한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는 향후 후보이미지를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9장은 지방선거에서 경제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투표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서구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제투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투표가 경험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직자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경제개선이나 악

화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때 그 대상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선거에서도 회고투표뿐 아니라 전망투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고가 있었다. 우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패널조사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SBS의 김진원 보도본부장과 중앙일보의 김수길 편집인, 박보균 편집국장, 전영기 부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 김병국 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은 패널조사 기획부터 자료수집 그리고 책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중앙일보의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와 SBS 현경보 차장은 학자들 못지않은 전문지식으로 설문지 검토와 패널조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의 흥미로운 결과들이 지면과 방송을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실사를 맡아 수준 높은 자료를 만들어 내 주신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사장과 김춘석 부장, 그리고 실무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네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응답자 패널의 유지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초 응답자 선정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응답자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양질의 패널자료를 생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논문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지기까지 편집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챙겨주신 동아시아연구원 출판부와 이상협 연구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 책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을 마치면서 한국 최초의 선거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보다 다양한 논문들로 책을 꾸미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앞으로 2006년 지방선거 패널자료를 널리 활용하여 학계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2007년 대선패널조사에서는 보다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층 깊이 있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필자들을 대신하여 이내영 · 이현우

목차

제1부 왜 패널조사인가

1	선거연구와 패널여론조사	김장수	19
2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김춘석 · 박종선 · 정원철	39

제2부 패널조사에 나타난 유권자 표심변화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지방선거	정원철 · 정한울	65
4	투표의사의 변화와 투표참여	서현진	95
5	5·31 지방선거의 유동투표자 분석	이현우	119

제3부 표쏠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6	정치이념 및 정당에 대한 태도 : 그 변화와 상호적 역동성	김장수	147
7	5·31 지방선거와 정당지지기반의 재편 : 이탈투표의 분석	이내영	169
8	정당 · 후보자요인과 선거운동 :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강원택	195
9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정한울	223

표목차

제1부

1장

- 〈표1〉 정당지지자 중 서울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 33
- 〈표2〉 자기 인식적 정치이념의 변화 / 35

2장

- 〈표1〉 패널조사 이외의 시계열조사방법 / 40
- 〈표2〉 패널조사의 단점과 대비책 / 43
- 〈표3〉 조사기획 과정 / 45
- 〈표4〉 조사유형 및 조사지역 / 46
- 〈표5〉 조사표본 및 표집오차 / 48
- 〈표6〉 조사 횟수 및 조사기간 / 49
- 〈표7〉 지역패널 유지율 / 52
- 〈표8〉 전국패널 유지율 / 53
- 〈표9〉 언론보도 절차 / 55
- 〈표10〉 1차 조사 참여자와 4회 전체 조사 참여자 비교 / 59

제2부

3장

- 〈표1〉 5·31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명) / 65
- 〈표2〉 5·31 지방선거 정당별 득표율 현황 / 66
- 〈표3〉 서울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 73
- 〈표4〉 부산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 74
- 〈표5〉 광주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 74
- 〈표6〉 충남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 75
- 〈표7〉 국정평가와 정권 인식이 주요 후보의 지지에 미친 영향(% , %p) / 81
- 〈표8〉 문재인 “현 정권은 부산정권” 발언에 대한 의견 / 87

- 〈표9〉 노대통령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핵심지지층의 특성 / 92~93

4장

- 〈표1〉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집단과 투표 집단 / 103
- 〈표2〉 미결정 유권자 집단 / 104
- 〈표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 107
- 〈표4〉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 109
- 〈표5〉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 111
- 〈표6〉 투표참여와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미결정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 113

5장

- 〈표1〉 투표자 유형과 선거관심도 비교(T-test) / 127
- 〈표2〉 지지변경 횟수에 따른 선거관심 차이분석(ANOVA 분산분석) / 128
- 〈표3〉 분산분석 사후조사(Duncan test) / 129
- 〈표4〉 투표자 유형과 투표정당의 선호 및 평가 / 130
- 〈표5〉 현직자출마에 따른 일관투표자와 유동투표자의 투표분포(%) / 132
- 〈표6〉 지지후보 변경과 정당선택 / 134
- 〈표7〉 유동투표자의 지지정당 변화 분포 / 135
- 〈표8〉 부동층과 유동층의 정당지지비율 차이 / 137
- 〈표9〉 지역별 유동투표자에 따른 정당손익(명) / 138

제3부

6장

- 〈표1〉 정치이념의 변화와 지속성 / 152
- 〈표2〉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지속성 : 좋아하는 정당(명) / 154

- <표3>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지속성 : 싫어하는 정당(명) / 155
- <표4> 정치이념과 정당에 대한 태도가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 / 156
- <표5> 정당에 대한 태도가 정치이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 159
- <표6> 정치이념에 따른 좋아하는 정당의 변화(%) / 160
- <표7> 좋아하는 정당에 따른 정치이념의 변화(%) / 162
- <표8> 지역별 좋아하는 정당의 변화(%) / 165

7장

- <표1> 5·31 지방선거 정당별 득표율(%) / 170
- <표2>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지지기반 변화(%) / 171
- <표3> 17대 총선과 5·31 지방선거의 이탈투표 / 179
- <표4> 열린우리당 이탈투표자와 고정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성향(%) / 181
- <표5> 새로운 한나라당 지지층의 특성 / 182
- <표6> 주요 정당에 대한 평가(%) / 186
- <표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탈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 191

8장

- <표1> 후보지지의 고려 사항(%) / 210
- <표2> 지지후보의 변화 추이(%) / 211
- <표3> 강금실 후보 지지자[1차 조사 기준]의 지지 요인별 잔류비율(%) / 212
- <표4> 두 후보 지지자의 사회적 속성(%) / 214
- <표5> 지지 후보별 TV 토론 시청 여부(%) / 215
- <표6> 선거 관련 언론 보도에서 관심을 갖는 내용(%) / 216
- <표7> 이전 선거에서의 선택과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투표후보 / 217

- <표8>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219

9장

- <표1> 네 개 지역 유권자의 사회적 경제인식·개인적 경제인식 비교(%) / 238
- <표2>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 / 243
- <표3> 경제이슈 해결정당(열린우리-한나라당)별 선거투표 / 244
- <표4> 지역경제 “개선”의 책임(%) / 246
- <표5> 지역경제 “악화”의 책임(%) / 246
- <표6> 지역별 투표결정 로짓분석모델 / 251
- <표7> 통합 투표결정 로짓분석모델 : 네 개 지역 통합 / 253

그림목차

제2부

3장

- <그림1> 지역별 후보 지지변화(%) / 69~70
- <그림2> 17대 총선 지지와 2006년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 열린우리당 지지자(%) / 72
- <그림3> 17대 총선 지지와 2006년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 한나라당 지지자(%) / 72
- <그림4> 노무현 정권 심판론 대 지방권력 심판론(%) / 78
- <그림5> 지방선거 결과의 원인(%) / 79
- <그림6> 야당 및 보수언론·단체의 발목잡기가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미친 영향(%) / 82
- <그림7> 노대통령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국경방향평가(%) / 85

- 〈그림8〉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계획에 대한 평가(%) / 88
- 〈그림9〉 주관적 이념성향 분포의 변화(%) / 90
- 〈그림10〉 한나라당 선거독식에 대한 인식(%) / 90

제3부

7장

- 〈그림1〉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유(%) / 184
- 〈그림2〉 노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 / 187
- 〈그림3〉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 188
- 〈그림4〉 국민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의 분포
(지방선거 직후 여론조사, %) / 189

8장

- 〈그림1〉 강금실,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 / 208
- 〈그림2〉 강금실 후보의 지지요인 : 변화 추이(%) / 208
- 〈그림3〉 오세훈 후보의 지지요인: 변화 추이(%) / 209

9장

- 〈그림1〉 경제투표이론의 쟁점별 분류 / 229
- 〈그림2〉 전국 유권자의 사회적·개인적 경제인식(%) / 236
- 〈그림3〉 개인경제인식별 대통령지지 변화(%) / 239
- 〈그림4〉 지역경제인식별 대통령지지 변화(%) / 239
- 〈그림5〉 개인경제인식별 한나라당-열린우리당 투표지지율
격차 변화(%p) / 241
- 〈그림6〉 지역경제인식별 한나라당-열린우리당 투표지지율
격차 변화(%p) / 241

제 1 부

왜 패널조사인가

2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김춘석 · 박종선 · 정원철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특징과 전략

패널조사의 장단점

패널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권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방법이다(Yaffe 2003).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시기별로 물어볼 경우 응답자의 태도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패널조사가 갖는 장단점을 패널조사의 대체방법으로 활용되는 조사기법들과 대비함으로써 패널조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패널조사 시 유의해야 할 방법론적 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에서 방법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했는지 정리한다.

패널조사를 대신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선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 <표1>에 정리한 것처럼 과거투표 회상조사·시계열 추세 분석·세대집단분석이 많이 활용된다(ANES Panel Studies 2007~2009). 그러나 세 가지 연구 방법은 각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과거투표 회상조사는

〈표1〉 패널조사 이외의 시계열조사방법¹⁾

	과거투표 회상조사 (recall of past voting)	시계열 추세 분석 (trend analysis)	세대집단분석 (age-cohort analysis)
특 징	· 유권자에게 과거 투표행태를 회상하게 하여 현재의 투표행태와 과거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 · 개인 차원의 선호 변화 확인 가능	·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집합자료화한 데이터의 평균이나 분산 등을 비교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유권자 투표행태의 추세를 규명(Bartels 2000; Mackuen et al. 1989; Page et al. 1992)	· 동일시점에 세대별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 · 세대효과, 유권자의 성숙에 따른 연령효과, 특정 시점에 전세대적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온 시기효과를 측정 (Erikson et al. 2005)
문 제 점	· 당선자 오버 리포팅 등의 거짓 응답 · 기억의 부정확성	· 개인 수준의 투표선호 변화의 관찰 및 분석이 불가	

개인의 부정확한 회상에 의존함으로써 응답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계열 추세분석과 세대집단분석은 집합자료에 의존한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의 투표의사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미국의 선거데이터 축적을 주도하고 있는 미시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ANES 공동연구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차원에서 시계열에 따른 유권자 태도 변화를 가장 확정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방법론”으로서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패널조사야말로 “실험방법론에 가장 근접한 연구방법으로서 조치 전후의 변이를 관찰함으로써”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ANES Panel Studies 2007-2009). 미국 ANES 시리즈 역시 2000년대 이후에는 일회성 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2007~2009년에도 대규모 선거패널조사를 기획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패널조사의 장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패널조사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은 적지 않은 단점과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패널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요인은 크게 패널손실, 패널오염효과, 고비용 문제 등이다. 패널손실의 문제는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결국 패널들이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패널오염효과는 반복되는 패널조사 과정에서 내재적 요인에 의해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패널피로효과와 정치적 각성효과가 대표적인 예이다.²⁾ 패널피로효과는 잦은 조사 빈도나 조사과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응답자의 심리적·육체적 피로를 유발하여 진실하게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적 각성효과는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수차례 조사에 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식이나 관심이 스스로 높아져 평범한 일반국민과 다른 성향과 태도를 갖게 되는 문제이다. 한편 패널조사는 일정한 패널을 유지하고 성실한 응답을 유발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동일 대상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반복해야 함에 따라 조사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Gloves et al. 2000, Kenski 2004, ANES Panel Studies 2007).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1930년대에 선거여론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선거연구의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조차 전국단위 패널조사의 경험은 1980년과 2000년 두 번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도 패널조사의 경험이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꼽힐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몇 차례 시험적인 시도는 있었지만 선거패널조사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도 않았다.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선거연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조사업체도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할 역량을 갖추어감에 따라 본격적으로 패널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요 방송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선거 예측조사는 비용 대비 효과와 사회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발성 선거 여론조사도 경마식 조사와 보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선거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선거 패널조사를 실시할 환경 또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조사 연구 풍토를 고려할 때 어느 일개 기관이 비용, 조사설계, 패널관리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31 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는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별도의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중앙일보와 SBS의 컨소시엄 참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국내 최초의 전국단위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SBS의 현경보 차장(여론조사 전문위원), 중앙일보의 신창운 기자(여론조사 전문위원),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방선거 선거패널연구팀(팀장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및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장(패널조사 전담팀 팀장)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설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조사설계·조사과정·언론보도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으며 아래에 기술하는 조사설계와 관련한 사항은 패널조사 공동 운영위원회 협의의 결과이다. 패널구축과 유지 및 자료수집은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였다.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론적 전략

본 패널연구팀은 패널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패널조사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패널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목적의 수준별로 데이터 수집을 이원화함으로써 패널조사의 조사횟수를 최소화하여 패널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전국패널조사의 경우 1,300명의 대규모 패널을 초기 구축했고, 네 개 지역패널조사의 경우도 한국에서 진행된 지역 단위별 조사로는 대규모 샘플인 800명 규모로 초기패널을

〈표2〉 패널조사의 단점과 대비책

	패널손실	패널오염효과	고비용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응답자가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패널로부터 이탈 · 패널 초기 탈락자와 생존자간에 내재적인 차이 존재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패널 탈락률이 높고 (Gloves et al, 2000), 초기 탈락자에 비해 생존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참여율이 높은 차이를 보여줌 (Lubin et al,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의 잦은 빈도로 부터 오는 응답자 피로감 문제 ·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정치적 각성이 발생해 일반 유권자의 태도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등 · 패널손실의 문제로 이어지거나 진실된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킴 (Kenski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중 일부가 조사과정에서 이탈할 것을 고려하여 초기 패널 구축 시 대규모 샘플을 확보해야 하고 시기별 반복조사로 인해 막대한 비용 발생 · 패널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비용 발생 요인
보 완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연구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태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봄(Price and Zaller 1993; Hahn et al, 1999; ANES panel studies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 · 숙련된 조사자 채용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사용으로 조사 피로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경우 국가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비용문제 해결
본 조 사 의 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패널을 초기 구축함으로써 패널손실에 대비 · 샘플의 일관성을 위해 손실된 패널을 신규대체하지 않음 · 무작위 샘플과 마스터샘플 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공 · CATI System 사용으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자 피로도 완화 · 신뢰성 검증 · 패널조사와 일반조사 결과의 분야별 비교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재정 지원 통로 확보

구축했다. 이는 잘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패널손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으로서 샘플 수를 대폭 늘이는 전략을 적용한 것이다(Zaller 2003). 셋째, 무작위

표본추출을 기본 방법으로 활용하되(전체의 63%) 한국리서치가 2001년부터 구축해온 7만 명 규모의 마스터패널 샘플에서 무작위로 나머지 37%의 지방선거 패널을 모집하였다. 마스터 샘플에서 추출된 패널의 경우 자발적으로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응답자 풀로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축한 패널보다 응답유지율이 20%p 가량 더 높아 패널유지율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³⁾ 또한 매 조사 시점의 투표지지율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할 경우에는 손실된 패널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조사결과에 성·연령·지역·학력의 네 개 변수를 전국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자동화된 전화조사 시스템(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을 활용함으로써 패널피로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했다.⁴⁾

조사설계

‘2006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지역조사 및 전국조사’는 2005년 9월에 최초 기획을 통해 참여 주체들 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였다.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인 기획은 2006년 2월부터 이루어졌다. 2월 8일 1차 공동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참여 주체 간 역할분담, 조사지역 및 조사 횟수, 조사규모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후 3월 2일에는 조사설계 확정과 조사내용 검토를 위한 2차 공동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였으며, 4월 4일에는 3차 공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1차 조사 설문지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 간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3차 공동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리서치의 제안으로 설문구성

을 위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설문구성을 위한 심층면접조사는 열린우리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층을 각각 20~30대, 40~50대로 구분하여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각 그룹당 7~8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설문 초안을 수정하였으며, 4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1차 설문 수정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4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1차 조사의 세부 일정과 방법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조사기획 과정

사전협의 내용	시기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방선거 패널조사’ 컨소시엄 구성 합의	2005년 9~12월
· 제1차 패널조사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역할분담, 조사지역 및 횟수 확정, 조사규모 확정)	2006년 2월 8일
· 제2차 패널조사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연구디자인 1차 확정, 조사 계획 보완)	2006년 3월 2일
· 제3차 패널조사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조사계획 잠정안 확정, 1차 조사 설문지 초안 검토)	2006년 4월 4일
· 제1차 조사 설문지 확정을 위한 FGI 실시	2006년 4월 19~21일
· 제4차 패널조사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1차 조사 설문지 최종 확정, 1차 조사일정 및 방법 확정)	2006년 4월 23일

조사유형

선거패널조사는 지역패널조사와 더불어 전국패널조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지역패널조사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투표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패널조사는 2006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반적인 특성과 전국 단위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200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는 의미도 부여하였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지역패널조사와 전국패널조사 모두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로 삼았다.

조사지역

지역패널조사의 조사지역 선정에 있어 첫째,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고 여론 변동 가능성이 높아 패널조사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둘째, 2007년 대통령선거 등 지방선거 이후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큰 지역, 셋째, 조사비용과 조사일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조사 지역을 4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4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안배 측면에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각각 1개씩 선정한다는 원칙 하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을 선정하였다. 전국패널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4〉 조사유형 및 조사지역

조사유형	조사지역
지역패널여론조사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국패널여론조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표본추출방법

패널조사 표본은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하였다. 표본 할당을 위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발행 200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근거로 삼았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하였다. 지역 패널조사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행정구역(시·군·구)상의 권역과 성별(남자·여자) 및 연령대(29세 이하·30대·40대·50대 이상)를 각각 교차한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고, 전국패널조사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별(남자·여자) 및 연령대(29세 이하·30대·40대·50대 이상)별 교차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또한 지역패널조사와 전국패널조사 모두 해당 지역 모집단 학력분포를 추가적인 할당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패널조사에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패널유지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계층의 표본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된 표본보다 많이 표집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고연령층은 할당표본보다 많이 표집하였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 저학력층은 패널조사 참여율이 낮아 목표 할당보다 적게 표집할 수밖에 없었다. 최종 분석자료는 할당표집의 기준이 된 지역별·성별·연령별 교차 가중값에 해당 지역 전체 응답자 기준의 학력 가중값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조사표본과 표집오차

1차 조사표본을 설계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종 유효표본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둘째, 최소 패널유지율을 몇%로 설정할 것인가? 셋째, 도중 탈락 후 참여자도 해당 차수의 유효표본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지역패널조사는 네 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종 60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최초 응답자 패널은 800명 내외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전국패널조사는 최종적으로 1,000명의 유효표본을 유지

한다는 목표 하에 최초 응답자 패널은 1,300명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처음 구축한 응답자 패널의 70% 이상이 최종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며 도중 탈락 후 참여자도 해당 차수의 유효표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치였다.

〈표5〉 조사표본 및 표집오차

조사유형	조사표본	표집오차
지역패널여론조사	서울 : 818명	±3.4%
	부산 : 773명	±3.5%
	광주 : 784명	±3.5%
	충남 : 793명	±3.5%
	전체 : 3,168명	
전국패널여론조사	1,299명	±2.7%

주) 이번 조사는 비확률표집인 할당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표집오차를 구할 수 없으나 무작위추출을 전제했을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를 산정하였음.

조사 횟수 및 조사기간

조사 횟수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조사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편파는 최소화되 패널유지율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일정을 고려하면서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사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패널조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인 제약요건인 조사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역패널조사는 투표 전 3회와 투표 직후 1회 등 총 4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투표 전 3회 조사는 투표 1개월 전, 후보자 등록 마

감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 등을 전후로 실시하였다. 투표 직후 조사는 투표일 다음날 실시하였다. 전국패널조사는 투표 전과 투표 후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다. 투표 전 조사는 투표 후 조사 20일 전에 실시하였다. 투표 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투표 전 조사와 투표 후 조사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이 여론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패널조사의 성격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지역패널조사의 경우 2~4일, 전국패널조사는 2일이 소요되었다. 지역패널조사는 네 개 지역을 조사하고 총 표본수가 전국패널조사보다 많은 관계로 전국패널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더 길었다. 지역패널조사 1차 조사는 설문조사와 함께 패널을 모집한 관계로 4일 동안 진행하였다. 2차 조사와 4차 조사는 2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3차 조사는 3일 동안 진행하였다. 전국 패널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2일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방법

지역패널조사와 전국패널조사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자료수집과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지만 일반 전화조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원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점에서 응답자는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한 조사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표6〉 조사 횟수 및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 횟수	조사 기간
지역패널여론조사	4회 조사	1차 : 4월 26일~29일 (투표 1개월 전)
		2차 : 5월 18일~19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3차 : 5월 24일~26일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점)
		4차 : 6월 1일~2일 (투표 직후)
전국패널여론조사	2회 조사	1차 : 5월 10일~11일 (투표 20일 전)
		2차 : 6월 4일~5일 (투표 후)

조사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조사진행 시간, 응답자 접촉현황, 면접원별 조사진행 상황 등과 관련한 사항이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사상황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조사 후 검증 등을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응답자 재접촉 예약, 응답자 접촉횟수 지정, 패널 참여 거부횟수 등을 자동으로 축적되는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패널 대상자 요건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조사로 가능한 패널조사에 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패널구축 및 패널관리

지역패널조사와 전국패널조사 모두 1차 조사와 함께 패널을 구축하였다. 면접원은 조사의 의의와 중요성 및 조사방법과 일정 등을 소개하고 패널참여를 요청하였다. 패널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관련 문항과 응답자 특성 정보 이외에 패널의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은행 통장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다. 집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는 다음 차수부터 연락을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였다. 집 전화를 이용하여 1차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핸드폰은 부수적인 연락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은행 통장 계좌번호는 조사참여에 대한 사례금을 입금할 용도로 파악하였다. 패널조사는 패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성과와 관련이 깊은 패널유지율이 좌우된다. 패널관리 차원에서 다음 여덟 가지 방안을 활용하였다.

· 패널 모집 과정에서 응답자에게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

사가 국내 선거조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패널조사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패널조사에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면접원과 패널간의 친밀감형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차수마다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에게 응답자 응대와 관련한 교육을 반복하였다.
- 패널이 조사일정을 예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마친 후 패널에게 다음 조사일정을 알려주었다.
- 패널이 통화중이나 부재중일 경우 접촉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결이 될 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접촉시도 횟수가 20회를 넘기도 하였다.
- 조사참여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2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였으며 2회 연속 거부를 한 경우 패널에서 탈락 처리하였다
- 패널이 조사참여를 완곡하게 거부한 경우 3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였으며 3회 연속 거부를 한 경우 패널에서 탈락 처리하였다.
- 1차 조사 참여자 중 패널에서 탈락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이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에게는 재접촉을 시도하여 참여를 허락한 경우 패널에 추가하였다.
- 패널에게는 일정 수준의 사례비를 차수별 조사 종료 직후 패널의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패널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널구축과 함께 패널조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건이 패널유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표본 유지율 70%를 목표로 하였다. 패널이 탈락하여도 표본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중 탈락자도 마지막 차수의 조사에 다시 참여하면 원표본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지역패널조사의 패널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차례 모두 조사에 응한 패널 뿐 아니라 2차 혹은 3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

〈표7〉 지역패널 유지율

	조사 표본(명)					패널 유지율(%)			
	1차 조사 (4,26~29)	2차 조사 (5,18~19)	3차 조사 (5,24~26)	4차 조사 (6,1~2)	1·2·3·4차 모두 참여	1~2차 유지	1~3차 유지	1~4차 유지	1·2·3·4차 모두 참여
서울	818	670	646	626	545	81.9	78.9	76.5	66.6
부산	773	667	631	614	565	86.2	81.6	79.4	73.1
광주	784	648	630	614	542	82.6	80.3	78.3	69.1
충남	793	621	602	583	531	78.3	75.9	73.5	67.0
전체	3,168	2,606	2,509	2,437	2,183	82.2	79.1	76.9	68.9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주) 3차 · 4차 조사 응답패널 중에는 이전 차수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도 참여인원으로 포함됨.

았지만 4차 최종조사에 참여한 패널까지 포함하여 4차 조사의 최종 패널유지율은 서울 76.5%, 부산 79.4%, 광주 78.3%, 충남 73.5%이다. 네 지역 모두 패널유지율이 70%를 상회하였으며, 부산의 경우 80%에 육박하였다. 패널탈락율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가 20% 내외로 가장 높았고,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의 패널탈락율은 2차 조사의 패널탈락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패널유지율을 높이려면 2차 조사 탈락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네 차례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의 패널유지율은 서울 66.6%, 부산 73.1%, 광주 69.1%, 충남 67.0% 등으로 70% 내외였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패널조사의 패널유지율은 77.1%로 지역패널조사의 2차 패널유지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표8〉 전국패널 유지율

조사차수	응답패널수(명)	패널유지율(%)
1차 조사	1,299	-
2차 조사	1,001	77.1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조사 데이터

자료의 처리와 활용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한국리서치 자료처리팀에서 처리하여 연구부에 이관하였다. 연구부에서는 자료처리팀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SPSS 파일 형식으로 받아 데이터를 검증한 후 검증 결과를 자료처리팀으로 전달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다. 데이터가 확정된 후 연구부에서 지역별 패널할당변인(지역별 · 성별 · 연령별)과 학력변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할당변인인 지역별 · 성별 · 연령별은 각각의 교차값을 기준으로, 학력은 전체값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가중치는 200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학력 가중치는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값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교차 가중값과 학력 전체 가중값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종 결과가 최초 할당값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가중값 부여 절차를 지속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_{ij} = \frac{P_{ij}}{N} \cdot n$$

$$W_{ij} = \frac{S_{ij}}{R_{ij}}$$

W_{ij} : ij번째 가중값
 N : 전체 유권자수
 n : 전체 유효표본수
 P_{ij} : ij번째 유권자수
 S_{ij} : ij번째 할당표본수
 R_{ij} : ij번째 유효표본수

한편, 한국리서치는 가중값을 부여한 최종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원자료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하였다.
- 개별문항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등) 및 주요 분석문항과 교차한 결과표를 한글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하였다.
- 시계열 자료를 효과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한국리서치 전용 분석 프로그램인 H-DAS를 제공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조사는 중앙일보와 SBS 등 신문사와 방송사가 참여한 조사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도 조사 직후 언론에 보도되었다. 패널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절차는 <표9>와 같다.

<표9>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조사 결과는 SBS에 총4회, 중앙일보에 총5회 보도되었다. 또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한 2006 연례학술회의에서 네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조사결과가 학술적인 목적과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9> 언론보도 절차

1. 데이터 및 테이블 제출	한국리서치는 자료 수집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EAI에 제출
2.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자료수집 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 분석방향 및 보도방향 협의
3. 분석결과 제출	EAI는 자료분석결과를 보도시점 24시간 전에 각 언론사에 제출함
4. 언론 보도	SBS 보도를 우선으로 익일 중앙일보 보도 진행

5 ·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시사점

2006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는 다른 패널조사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과제로 남겼다. 즉 패널구축 시 참여의사가 높은 응답자만 모집됨으로써 나타나는 표집과정에서의 대표성 문제, 참여의사가 높은 응답자만 유지되는 패널유지과정에서의 대표성 문제, 패널로 유지되는 응답자의 학습효과에 의한 패널오염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패널조사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패널조사의 성패를 가르는 요건 중의 하나인 패널유지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차 조사 시의 패널탈락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패널구축 과정이나 1차 조사 시 응답자 부담을 줄여 2차 조사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조사 설계 및 설문구성의 타당성과 패널의 특성을 검토할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조사에서는 본 조사 이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패널조사를 통해 유권자 인식과 선거행태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회의 조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언론 보도를 전제할 경우 조사결과 분석 기간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결과 도출 후 언론 보도까지의 기간이 짧아 연구진의 작업이 수월하지 않았으며 심층분석에 제약이 따랐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조사는 본격적인 의미의 선거 패널조사로 최초의 조사였다는 점에서 조사설계와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성과는 적지 않았다. 이번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국내 선거 패널조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패널조사를 다양한 유형의 선거에 적용함으로써 선거연구 측면이나 조사방법론 측면에서 유용하고 생산적인 결과물이 양산되기를 기대한다.

보론 : 패널손실 분석

〈표10〉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론적 전략 하에서 진행된 패널조사에서 1차에서 4차까지 모든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비율은 67%~ 73%에 달한다.⁵⁾ 연구디자인 단계에서 목표 패널유지율을 70% 정도로 잡았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패널손실의 문제가 패널조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은 첫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면 패널조사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된 패널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내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패널조사에 응한 응답자 샘플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전체국민의 인식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진다. 다시 말해 조사결과를 전체 모집단 일반의 여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패널손실의 원인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고 있다. 첫째는 패널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응답자 개인의 사회적 특성보다는 실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

자가 느끼는 부담감에 주목하는 입장이다(Couper and Groves 1992, Loosveldt and Carton 1997). 여론조사 과정에서 유권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조사시점의 선거 뿐 아니라 과거의 선거 때 참여했던 여론조사의 인상이나 조사자와의 조사과정에서의 관계가 패널조사의 지속적인 참여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루즈벨트와 카톤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패널손실(2차 조사에서의 무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력·성·직업·세대와 같은 요인들을 꼽았다. 즉 저학력일수록, 여성일수록, 높은 연령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패널손실률이 높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경험 중에서도 1차 조사 때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2차 조사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한다.

다만 루즈벨트와 카톤은 사회적 배경변수나 1차 조사에서의 경험이 패널응답자의 지속적인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이들 변수들이 정치적 지식수준과 이해관계, 응답자의 능력과 같은 응답자 요인과 결부되고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조사과정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한편으로는 조사자의 답변유도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응답자가 질문을 받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적능력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Loosveldt and Carton 1997, 1017-8).

이번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에서 1차 초기구축 패널과 1~4차의 모든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10〉에서 보면 우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세대·학력·직업·소득 등에 따라 패널유지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30대가 네 개 지역 모두에서 패널유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와 20대의 유지율이 비슷하게 높았다. 50대 이상은 가장 유지율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실제 투표율에서는 역으로 고령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

성이 높고 낮은 연령일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앞서 루즈벨트와 카톤의 주장처럼 응답자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표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 질문형식이지만 패널조사의 경우 여러 차례의 조사횟수 뿐 아니라 매 조사 마다 많게는 20~40여 문항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지적능력을 요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고학력자는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도 저학력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직업으로는 사무관리직인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10>에서도 이들 계층에서 패널손실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의 가설을 확인시켜 준다.

다만 여성과 남성 간에는 패널유지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서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패널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osveldt and Carton 1997, 1021). 또한 정당일체감 차원에서 보면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패널손실율에 큰 차이가 없어 패널손실이 최소한 양당에 대한 지지율 격차를 왜곡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과거 조사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조사과정에서의 응답자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소한 사회적 특성별로 패널유지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한국 선거패널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10> 1차 조사 참여자와 4회 전체 조사 참여자 비교

(단위: 명, 괄호 안은 %)

	서울		부산		광주		충남	
	1차 조사 (4.26~29)	4회 전체 (4.26~6.2)						
1차 조사 대비 4회 조사 전체참여 패널	818 (100)	545 (66.7)	773 (100)	565 (73.1)	784 (100)	542 (69.2)	793 (100)	531 (67.0)
성별								
남	396	263 (66.4)	388	288 (74.2)	386	273 (70.7)	394	261 (66.2)
여	422	282 (66.8)	385	277 (71.9)	398	269 (67.6)	399	270 (67.7)
학력								
중졸 이하	110	51 (46.4)	113	68 (60.2)	104	50 (48.1)	222	114 (51.4)
고졸	217	142 (65.4)	242	174 (71.9)	212	147 (69.3)	290	203 (70.0)
대재 이상	491	352 (71.7)	418	323 (77.3)	468	345 (73.7)	281	214 (76.2)
연령								
29세 이하	180	128 (71.1)	173	128 (74.0)	185	126 (68.1)	112	71 (63.4)
30대	184	137 (74.5)	156	125 (80.1)	187	145 (77.5)	156	124 (79.5)
40대	165	111 (67.3)	176	132 (75.0)	165	117 (70.9)	183	131 (71.6)
50세 이상	289	169 (58.5)	268	180 (67.2)	247	154 (62.3)	342	205 (59.9)
직업								
블루칼라	89	53 (59.6)	112	72 (64.3)	118	82 (69.5)	239	140 (58.8)
화이트칼라	205	156 (76.1)	168	133 (79.2)	157	122 (77.7)	114	87 (76.3)
자영업	128	82 (64.1)	122	91 (74.6)	133	90 (67.7)	105	69 (65.7)
주부	238	151 (63.4)	209	153 (73.2)	206	139 (67.5)	219	164 (74.9)
학생	88	62 (70.5)	77	55 (71.4)	84	57 (67.9)	48	27 (56.3)
무직/무응답	70	42 (60.0)	85	61 (71.8)	86	52 (60.5)	68	44 (64.7)

	서울		부산		광주		충남	
	1차 조사 (4.26-29)	4회 전체 (4.26-6.2)						
소득								
100만원 이하	50	24 (44.4)	87	54 (62.1)	68	40 (58.8)	169	90 (53.3)
101~199만원	108	60 (55.6)	96	65 (67.7)	133	100 (75.2)	143	101 (70.6)
200~299만원	150	105 (70.0)	200	155 (77.5)	208	141 (67.8)	188	137 (72.9)
300~399만원	196	141 (71.9)	161	128 (79.5)	176	124 (70.5)	119	90 (75.6)
400만원 이상	259	187 (72.2)	183	137 (74.9)	165	121 (73.3)	111	81 (73.0)
정당지지								
열린우리당	203	133 (65.5)	145	111 (76.6)	271	192 (70.8)	178	115 (64.6)
한나라당	330	215 (65.2)	402	295 (73.4)	31	19 (61.3)	256	172 (67.2)
민주당	33	18 (54.5)	8	1 (12.5)	235	161 (68.5)	19	11 (57.9)
민주노동당	99	74 (74.7)	95	76 (80.0)	110	84 (76.4)	70	50 (71.4)
국민중심당	6	6 (100.0)	3	1 (33.3)	4	2 (50.0)	97	65 (67.0)
지지정당없음	144	97 (67.4)	115	78 (67.8)	130	82 (63.1)	157	112 (71.3)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1) ANES 2007-2009 패널스터디 웹페이지와 에릭슨과 테딘의 논의(Erikson and Tedin 2005)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2) 패널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패널조사에 응하는 층과 이탈하는 층 간에 정치적 관심도나 투표참여율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라이스와 잘러는 그 외 정치적 태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Price and Zaller 1993).

3) 한국리서치의 자체분석 결과도 마스터 샘플 응답자와 임의표집된 응답자 사이에 투표참여도나 정치 관심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 후보지지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선거를 보면 마스터샘플의 응답분포는 실제 투표결과를 거의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마스터 샘플의 응답규모와 유지율의 차이는 『Research Note』 summer 여론조사 특별호(한국리서치, 2006)를 참조할 것.

4) 재정부담의 문제는 본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5) <표10>에서 보여주는 결과값은 1차 조사와 4회 전체 조사 참여자에 대한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값이다. 참고로 이번 패널조사는 네 개 지역에서 총 4회가 실시되어 개별 조사의 수는 모두 16회이다. 가중치 역시 16회 조사마다 각기 다르게 부여되었다. 매 조사에 응한 샘플분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